

# 600년전 붓도랑·다랑이논 흔적만... '그림 같던 마을' 되살려야



화순군 이서면 영평리 달구리마을 붓도랑과 다랑이논은 농사를 짓지 않는 곳이 많아 논둑이 허물어지고 풀이 무성한 채 방치돼 있다.

/화순=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 농업유산 전남의 '오래된 미래'

### 6 화순 붓도랑·다랑이논



일종의 수로인 붓도랑 모습.

논에 물대던 붓도랑 최대 10km  
무등산 자락 휘돌아 빼어난 풍광  
구절초 군락 등 생물다양성 우수  
수로·논 복원...농업유산 등재를

화순군 이서면 영평리 달구리 마을 붓도랑과 다랑이논은 국가중요농업유산과 세계중요농업유산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기게 해주는 농업 유산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현재 달구리 마을의 붓도랑과 다랑이논은 없다. 다만, 과거에 먹고 살기 위해 산비탈을 깎아 만든 논둑이 있었고, 논에 물을 대기 위해 10km가 넘는 붓도랑을 뚫었다는 이야기와 흔적만 남아 있을 뿐이다.

사라져가는 농업 유산을 찾아내고, 보존하는 것은 국가중요농업유산과 세계중요농업유산이 지닌 또 하나의 가치다. 아름답고, 신기한 농업 유산도 많지만 우리가 흔적만 남아 있는 달구리 마을 붓도랑과 다랑이논을 잊지 않고, 되살려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지금은 사라져버린 것들=지난달 29일 오전, 달구리 마을 주민 하만(83)씨의 안내로 붓도랑과 다랑이논을 찾았지만 풀이 무성하게 자라 접근할 수 없을 지경이었다.

추적추적 내리는 빗속에 뒷산을 오르며 하씨는 손가락을 움직이면서 "이곳도 논이고, 저곳도 논이었는데..."라며 말을 잊지 못했다. 현대화 과정에 마을 빈집이 늘면서 자연스럽게 농사를 짓지 않고 방치한 논들도 생겨났다.

또 농업이 기계화되면서 산비탈 논에서 일하기 힘들어지자 아예 농사를 포기하거나 흙을 파내 농지를 개량하기도 해 과거 다랑이논의 모습이 많이 훼손된 상태다. 벼농사를 포기하고 아예 밭을 만들거나 축사를 짓기도 했다. 과거 다랑이논을 밀어버리고 집을 짓는 사람도 많다. 현재

다랑이논 위에는 축사 4곳, 집 10채가 자리 잡고 있다.

대부분 다랑이논은 농사를 짓지 않고, 수년째 묵혀 형태를 알아볼 수 없게 됐다. 과거 마을 뒷산에 올라 바라보면 계단식 논이 그림처럼 펼쳐졌지만 지금은 아예 찾아보기 힘든 모습이 됐다.

어린 시절 하씨는 논과 논 사이에 흐르던 붓도랑을 정비하기 위해 마을 사람들이 모여 일을 하던 날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붓도랑은 보의 물이 흐르는 곳이라는 뜻이며, 이 마을 사람들이 수로를 부르는 이름이다. 과거 마을 뒷산에 보를 설치한 뒤 다랑이논에 물을 대기 위해 도랑을 파면서 생긴 이름이다.

붓도랑도 다랑이논과 함께 허물어지거나 사라진 지 오래다. 또 붓도랑이 자주 허물어져 1980년대부터 붓도랑에 파이프를 묻어 흙을 덮어 버린 곳도 늘고 있다.

◇농업유산 지정 위해 보존 시급=무등산 자락을 끼고 있는 달구리 마을은 '가장 아름다운 마을'로 지정되는 등 자연 환경이 빼어나다. 아직도 낮은 들타이 좁은 골목 따라 이어져 있고, 맑은 물이 곳곳에서 흘러나온다.

한 때 이곳은 150가구가 넘는 큰 마을이었지만 지금은 50가구 정도가 모여 있다. 대부분 그나마 남아 있는 다랑이논에서 논농사를 짓거나 보리콩, 울무 등을 재배하며 살아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곳 다랑이논은 600년 전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전남도와 화순군이 달구리 마을 다랑이논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은 보에서 논으로 물을 연결하는 붓도랑의 특성 때문이다. 산비탈 논에 만들어진, 대부분 논이 20평 내외로 작아 붓도랑의 길이는 최대 10km에 달한다.

또 주변에는 소나무 숲과 편백나무 숲이 자리 잡고 있고, 유채꽃과 구절초 군락 등 자연환경이 잘 보존돼 있다. 세계중요농업유산 선정 기준인 생물다양성이 충분하다.

화순군은 붓도랑과 다랑이논을 보존하기 위해 주민 112명으로 꾸려진 마을보존회를 구성했다.

하지만 붓도랑과 다랑이논의 훼손이 심해 농업유산 지정 추진 전에 적극적인 보존 노력이 우선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화순=조성수기자 css@kwangju.co.kr

## 다랑이논 복원하려면

### 日 노토반도 유산 보존 사례 귀감 도시민 '자기 논 갖기' 운동 필요

현대화 과정에 사라져버린 소중한 유산 화순 달구리 마을의 다랑이논을 살리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달구리 마을 다랑이논의 복원을 위해서는 산비탈을 깎아 만든 비슷한 형태의 계단식 논을 보존하고 있는 일본 이시카와(石川)현 노토(能登)반도의 성공 사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세계중요농업유산인 노토 반도 다랑이논은 달구리 마을의 계단식 논에 비해 평균 크기가 작다. 이 계단식 논은 큰 것은 20평(66㎡), 작은 것은 모 여섯 포기를 심으면 차고 넘치는 정도다. 명색이 논이지만 산비탈에 조성되다 보니 세숫대야 크기의 작은 논도 많다.

노토 반도 일대도 농촌 공동화와 고령화로 농사 지을 사람이 없는 실정이다. 대부분 논 소유자들이 나이가 많아 농사를 그만두고 있지만 세계중요농업유산을 지키기 위한 많은 사람의 노력으로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비결은 '도시민 자기 논 갖기 운동'이다. 노토 반도의 논에는 농사를 짓는 사람들의 이름을 적어 놓은 나무 말뚝(사진)이 하나씩 박혀 있다. 세계중요농업유산인 노토반도를 보존하고, 전통농법을 배우기 위해 돈을 들여 논을 빌린 사람들이며, 차로 8시간을 달려야 하는 도쿄에서 농사를 짓기 위해 오기도 한다.

또 대학과 연구소 등도 앞다투어 노토 반도에서 농사를 짓고 있다. 이런 도시민의 노력으로 노토 반도 4만51㎡의 계단식 논에서 해마다 4t의 쌀을 생산하고 있다.

논의 크기가 작기 때문에 기계를 쓸 수 없어 일일이 모를 손으로 심는 등 일은 다른 논에 비해 힘들지만 선조의 농업 유산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더해져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되기까지 했다.

세계중요농업유산을 지키기 위해 농사를 직접 짓겠다는 사람들이 몰려 현재는 300여개 단체가 계단식 논에서 벼를 재배하고 있다.

특히 노토반도 지자체는 대학과 단체, 자원봉사자 등을 모집해 논을 복원하는 등 적극적으로 다랑이논 복원에 나서고 있다.

땅 주인은 이틀로부터 일 년에 2만엔(한화 24만원 가량)을 받고, 평상시에 물관리를 해주고 있다. 벼를 심고, 수확하는 것은 온전히 외국인들의 몫이다.

이처럼 논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농사를 짓는 방법밖에는 없다.

이시카와 현청 세가와 타로 세계중요농업유산 담당은 "농업유산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현재도 그 방식대로 농사를 짓고, 미래에도 보존될 수 있는 구조를 갖춰야 한다"면서 "도시민의 농사 참여를 통해 농업유산을 보존하고, 유산의 가치를 알리는 기회도 만들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이 취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프리미엄 뷔페 아이엘리시아** 돌잔치, 피로연, 칠수연, 세미나, 각종행사 (100석, 90석, 68석 40석28석, 16석 룸완비)



**YONAMJA 유스퀘어점**

**매콤한 오남자 필라프**  
YONAMJA Spicy sauce pilaf ₩7,900

**봉골레**  
Yonggole Half ₩10,800

**밀라노식 허브 크리스피 치킨 스테이크**  
Milano-herb crispy chicken steak Half ₩10,800

**핫 스파이스 오렌지 소스 포크 스테이크**  
Hot Spicy Orange Sauce pork steak Half ₩10,800

**허니고곤졸라 피자**  
Honey gorgonzola pizza ₩12,900

오시는 길



유스퀘어 2층 예약 및 문의 : 062)671-1199

유스퀘어 2층 아이엘리시아 옆 문의 : 062)673-7979